

[TV]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such as 'KBS 뉴스광장', 'MBC 뉴스투데이', 'KBS 8 뉴스타임', etc.

Table with 4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TV programs such a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EBS 뉴스', 'EBS TV 중학 1학년', etc.

“동현군, 비버 목소리 연기 최고조”

이경규, 동물영화 '리틀 비버' 수입·더빙 연출

코미디언 이경규가 본격적인 영화 제작에 앞서 프랑스 동물영화 '리틀 비버'를 수입, 개봉한다.

1992년 '복수혈전'을 만들었지만 흥행에 실패했고 2006년 '복면달호'를 제작했던 이경규는 최근 '전국노래자랑'의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아동용 동물영화 '리틀 비버'를 수입해 더빙 연출을 맡았다.

이경규는 20일 오후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리틀 비버' 시사회에서 "어린이날 온 가족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가족영화"라며 "다음에는 직접 동물영화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재미있다고 추천을 해서 보고 수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동물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 작업 중인데, 경험 삼아 수입을 해 봤어요."

비버, 고양이, 너구리, 늑대 등 동물들을 촬영해 한 편의 이야기로 구성한 '리틀 비버'의 한국어 더빙은 김구라의 아들 동현군, 김구라, 이계인, 김영철, 이경규, 윤형빈 등 배우와 개그맨들이 맡았고 내레이션은 유재석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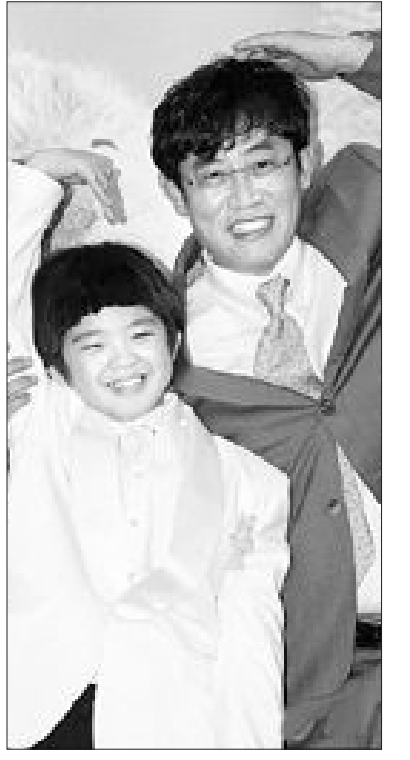
이경규는 주인공 비버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동현군에 대해 "더빙이 처음인데 소화를 잘했다"고 칭찬했다. "동현군에게 출연료를 제일 많이 줬어요. 동현군이 아무래도 '구라인(이경규 아들)'의 막내가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김영철씨는 6가지 동물 역할을 맡았는데 다 소화를 잘했고요. 또, 유재석씨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진 포석을 끝자 이번에 내레이션 제의를 거

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재석씨가 흔쾌히 수락했죠."

그는 흥행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니 운명에 맡긴다"고 단답했다.

동현군은 "제 팬들도 있고요, 유재석 아저씨도 요즘 톱이니 관객이 한 100만명쯤 들지 않을까 해요"라고 자신했다.

김구라는 앞으로 동현군의 연예 활동에 대해 "연예인은 운도 있어야 하고 기도 있어야 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동현이가 잘하고 있어요. 이경규수도 까다로운 본인대 칭찬을 하기에 동현이가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관심이 있으면 계속 시켜봐주세요.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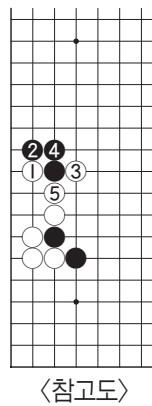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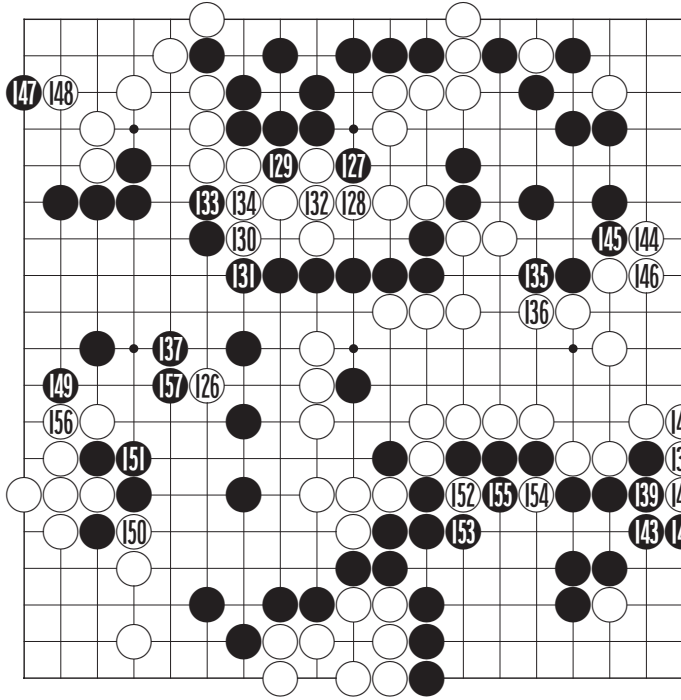


제4기 원익배 10단전

끝내기가 진짜 실력

결승 2국 8보(126~157)

白 백용석 6단 黑 박정환 3단



참고도

흑이 선착의 효를 살려 두터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막판 끝내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찌기 일본 최래의 타이틀이었던 본인방 바 있는 다가가와 9단은 '끝내기'가 진짜 실력이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만큼 끝내기란 것은 계산이 어렵고 정밀한 판단력과 수위기를 필요로 해서 종합적인 힘이 필

요하다. 최근 젊은 기사들이 좋은 성적 을 올리고 있는 것은 끝내기 수준이 '신산'이라는 이창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향상 됐기 때문이다. 백용석은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126으로 틀어다 보았는데 이 수가 매배할 수 없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부터 5까지 처리하는 것이 좋았다. 박정환이 흑 127부터 133까지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137로 응수하자 백 126이 중지않았습니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후 157까지는 완벽한 끝내기 수순으로 흑의 승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요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1일(음 3월 26일 丙申)

A table of horoscopes for the day. It lists zodiac signs (e.g., 子, 丑, 寅) and their corresponding birth dates and horoscope descriptions. The text is in Korean and includes details about the day's energy and advice.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four columns of content. From left to right: 1. 'Here they are' with English and Korean text about UFO sightings. 2. 'けいたいんでんわして' (Call on mobile) with Japanese and Korean text about mobile phones. 3. '多多指教' (Please teach me) with Chinese text about learning and education. 4. '蕩蕩平' (Tang Tang Ping) with Chinese text about a specific topic. The bottom of the columns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links.